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휴가철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도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 - 여름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5)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집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휴가철이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특히 여름휴가를 계획하거나 이미 다녀온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배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2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집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교회 행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방학 기간 동안 게을러지기 쉬운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욱 충실히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각 부서와 소그룹들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며, 전도와 선교에 힘써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와 피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어 말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3 - 가정과 사회를 위한 기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휴가철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우며 건전한 취미활동과 독서를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실업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히 폭염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8월 둘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4 - 감사와 헌신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둘째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다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문안교회 영상] (<http://www.saemoonan.org/Board/ListTV.aspx?vodType=1>)을 통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